

# 낙태에 대한 태도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 세계가치관조사 국제비교 연구

은기수\*

- 
- |                                   |                           |
|-----------------------------------|---------------------------|
| I. 들어가는 말                         | V. 종교변수의 설명력              |
| II. 자료, 변수와 분석방법                  | VI. 5개국의 낙태에 대한 태도의 심층 분석 |
| III. 낙태에 대한 태도의 국가간 비교            | VII. 맺는 말                 |
| IV. 종교열심도 및 종교중요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                           |
- 

## I. 들어가는 말

낙태에 대한 태도와 행위에는 사회마다 큰 차이가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낙태가 합법화되어 있어 여성들이 낙태를 원하는 경우 낙태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반면에 브라질의 경우 성에 대해서는 매우 자유로운 태도를 보이지만 낙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낙태시술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sup>1)</sup> 미국은 상황이 복잡하다. 미국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경우 낙태를 죄악시하고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낙태를 반대한다. 반면에 여성주의자들이나 진보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들은 태아의 생명보다는 임신한 여성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사회학

1) CNN Worldnews 1997년 10월 3일, <http://www.cnn.com/WORLD/9710/03/pope.brazil>. 브라질과 아일랜드는 세계에서 낙태에 가장 부정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 <http://www2.gol.com/users/bobkeim/abortion/restrict.html#shocking> 참조하기 바람

들이 자신들의 몸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낙태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낙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크고, 단순한 태도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를 살해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Pro-Life) 과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Pro-Choice) 사이의 대립이 비단 낙태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가치관이 양극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미국사회에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문화전쟁(Culture War)’의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고까지 주장되고 있다.<sup>2)</sup> 최근의 한 연구는 미국의 가치관의 양극화 명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미국내의 가치관이 일반인이 우려하는 만큼 양극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sup>3)</sup> 그 연구가 시작된 동기 가운데 하나도 낙태를 둘러싼 갈등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행위로까지 표출되는데 있었다.

한국의 경우도 낙태는 의식과 행위가 일치하는 않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전통적 가치관의 하나가 생명존중 사상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실제로는 낙태가 아주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sup>4)</sup>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낙태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배우여성들의 낙태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미혼여성들의 낙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미혼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술에 대해서는 편차가 매우 큰 추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정확한 수준을 말할 수는 없지만,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법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미혼여성이나 기혼여성 모두 낙태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가 한국

2) James D. Hunter, *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1991); Alan Wolfe, *One Nation, After All. What Middle-Class Americans Really Think About* (New York: Viking, 1998).

3) Paul DiMaggio, John Evans and Bethany Bryson, "Have Americans' Social Attitudes Become More Polariz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2, no. 3(1996).

4) 은기수, 「인공유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로짓분석과 생존분석의 비교」, 『한국인구학』 24 권 2 호(2001); 은기수·권태환, 「한국 유배우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및 결정요인」, 『한국인구학』 25권 1호(2002).

사회이다.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현재의 종교현실과 대비해 생각해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이지만 오늘날 한국인의 가치관에 전통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생명이라도 존중하는 개신교, 가톨릭 등의 종교를 믿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1/4 을 넘는 현실에서도 낙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낙태에 대한 태도와 실제 행위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한다. 태도와 행위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연구주제이지만 자료의 한계상 이 연구는 낙태의 실제 행위는 다루지 않고 낙태에 대한 태도와 종교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다만 2차자료를 인용해 자료가 존재하는 몇 개 국가의 낙태에 대한 태도와 인공임신중절율과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각 사회마다 낙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 분석에 따라서 낙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지닌 사회와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구별될 것이다. 그 다음 낙태에 대한 태도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각 사회는 독특한 신념체계를 지니고 있고, 이 신념체계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하나는 종교이다. 따라서 각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 (variation)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소의 하나로 종교를 설정하고 종교에 관련된 여러 요인이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살펴본다. 다음에는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등 5 개국을 택해 각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 II. 자료, 변수와 분석방법

### 1. 자료

이 연구에서는 1995년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이용한다. 세계가치관조사는 미국 미시건대학교의 로날드 잉글하트(Ronald Inglehart)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 매 5년 간격으로 전 세계에 걸쳐 조사되고 있다.<sup>5)</sup>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종교변수<sup>6)</sup>가 들어있는 32개 국가, 곧 노르웨이, 동독,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몰도바, 미국, 바스크,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브라질, 서독,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안달루시아, 에스토니아,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일본, 조지아, 칠레, 크로아티아, 페루, 폴란드, 핀란드, 호주, 한국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이들 국가 가운데 동독과 서독은 조사 당시 이미 통일이 되었다. 그러나 1995년 조사에서도 동독과 서독으로 따로 나뉘어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개의 국가로 구분해 분석했다. 또한 바스크도 공식적으로는 스페인의 일부이지만 스페인과 구별되는 문화체계를 지니고 있어 따로 조사된 상황을 인정해 별개의 국가로 다루었다.

심층적인 분석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등 5개국을 선택해 분석하였다. 5개국은 대륙별, 종교별 차이 및 낙태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따라 임의로 선택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질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5개국은 대륙별, 종교별 차이 못지 않게 낙태에 대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각국의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종교변수의 영향도 매우 흥미로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 2. 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낙태에 대한 태도”이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라는 형태로 질문되었다. 이 문항에 대한 답은 “1.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부터 “10. 항상 정당화된다”까지의 10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통제변수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과 결혼상태 등 네 개의 변수가 통제된다. 독립변수는 종교에 관한 세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종교이다. 각 응답자의 종교를 물어보고 가톨릭, 개신교, 유교, 유태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기타, 중

5) 이 조사자료에 관해서는 잉글하트의 여러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종교에 관련된 변수는 종교, 종교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종교에 얼마나 열심인가의 세 가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세 변수를 종교변수라고 일컫는다.

교 없음 등에 응답하도록 했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몇 개의 주요 종교 및 기타 종교로 재분류해 분석에 이용했다. 두 번째 종교변수는 종교의 중요도이다 “다음은 귀하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종교”라고 물어보고 응답자에게 “1. 대단히 중요하다”, “2. 대체로 중요하다”, “3. 거의 중요하지 않다”, “4. 전혀 중요하지 않다” 등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했다. 마지막 종교변수는 종교의 열심도이다. 한국판 문항은 “선생님은 종교에 얼마나 열심이십니까?”로 되어 있다. 이 문항에 대해 한국 응답자들은 “1. 대단히 열심”부터 “7. 거의 참여하지 않음”의 7점 척도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다. 그러나 세계가치관조사의 코드북을 보면 이 설문은 예배에 얼마나 참여하는가(attend services)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선택지도 “1.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 일주일에 한 번”, “3. 한 달에 한 번”, “4. 성알”, “5. 일년에 한 번”, “6. 일년에 한 번보다도 더 적게”, “7.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는 개신교나 가톨릭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씩 규칙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는 불교, 유교 등의 종교가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술적인 수준의 분석에서는 척도 1과 2를 묶어서 “매우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했다. 심층적인 분석에서는 이 척도를 연속변수로 간주하고 분석했다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무종교인인 경우에도 종교가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었다. 또한 종교활동에 얼마나 열심이냐는 질문에도 무종교인이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종교에 관련 없이 이들의 응답을 모두 유의미한 응답으로 간주하고 분석에 포함했다.

###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낙태에 대한 태도에 종교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낙태에 대한 태도라는 단일변수이다. 낙태에 대한 태도의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평균이나 비율 등과 같은 기술적인 분석을 실시한다. 그 다음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이 얼마나 종교변수에 의해 설명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종교변수가 없고 통제변수만 들어 있는 모형과 종교변수를 추가한 모형 사이에 설명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살펴보면서

낙태에 대한 태도에 종교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5개국을 선택해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때는 회귀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 III. 낙태에 대한 태도의 국가간 비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낙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을까? 다음 <표 1>은 이 연구에 포함된 국가의 사람들이 낙태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32개 국가 가운데 낙태에 대해 가장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브라질로 10점 척도에서 평균 2.02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낙태에 관해 가장 관대하게 생각하는 국가는 스웨덴으로 평균이 7.28이다. 브라질과 스웨덴의 낙태에 대한 평균의 차이는 5점이 넘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에 대한 태도의 평균이 3.35로 분석대상인 32개 국가 가운데서 가장 부정적인 국가로부터 일곱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즉 한국인의 낙태에 대한 태도는 국제간 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국가를 보면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남미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리투아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구 소련연방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중간위치에 놓여 있다. 반면에 스웨덴, 동독,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바스크, 서독, 핀란드 등 유럽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분석대상 국가들 가운데 낙태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스웨덴이 다른 유럽의 국가에 비해서도 단연 낙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다.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지배적인 남미의 국가들은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 개신교와 가톨릭의 역사가 긴 유럽의 국가들은 낙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고, 구 소련연방에 속했던 국가들은 남미와 유럽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낙태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을 표준편차를 고려해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 1>이다

<표 1> 낙태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 및 몇 나라의 인공임신중절율

국가	척도(1)	척도(1-2)	평균	인공임신중절율	
노르웨이	14.84	20.00	5.57	14.9	
동독	16.83	21.09	5.76	5.7	*
라트비아	12.15	18.53	5.29	46.7	
러시아	17.24	19.95	4.95	68.4	*
리투아니아	33.70	40.74	3.85	38.2	
멕시코	59.07	65.75	2.69	-	
몰도바	37.21	42.17	3.74	49.1	
미국	35.80	42.30	3.90	22.9	
바스크	22.07	27.80	5.43	-	*
베네수엘라	69.51	78.13	2.23	-	
벨라루스	19.67	25.64	4.60	75.4	
브라질	75.13	79.98	2.02	-	*
서독	19.92	24.84	5.40	5.7	
세르비아	16.08	20.60	5.12	-	
스웨덴	4.99	6.70	7.28	18.7	
스위스	22.29	27.76	4.90	8.4	*
스페인	31.84	37.19	4.49	5.5	*
아르헨티나	46.86	52.92	3.34	-	
아제르바이잔	30.84	35.56	4.18	16.2	
안달루시아	44.29	48.53	3.88	-	
에스토니아	15.44	18.89	5.18	55.8	
우루과이	47.08	50.43	3.81	-	*
우크라이나	29.13	32.78	4.23	61.4	
일본	22.00	28.97	4.36	13.4	
조지아	28.20	34.18	3.97	29	
칠레	68.55	74.63	2.22	-	
크로아티아	20.64	25.82	5.50	14.9	
페루	64.60	72.77	2.29	-	
폴란드	43.77	50.78	3.45	-	
핀란드	18.67	25.57	5.12	9.3	*
한국	37.81	47.59	3.35	19.6	
호주	23.02	28.27	4.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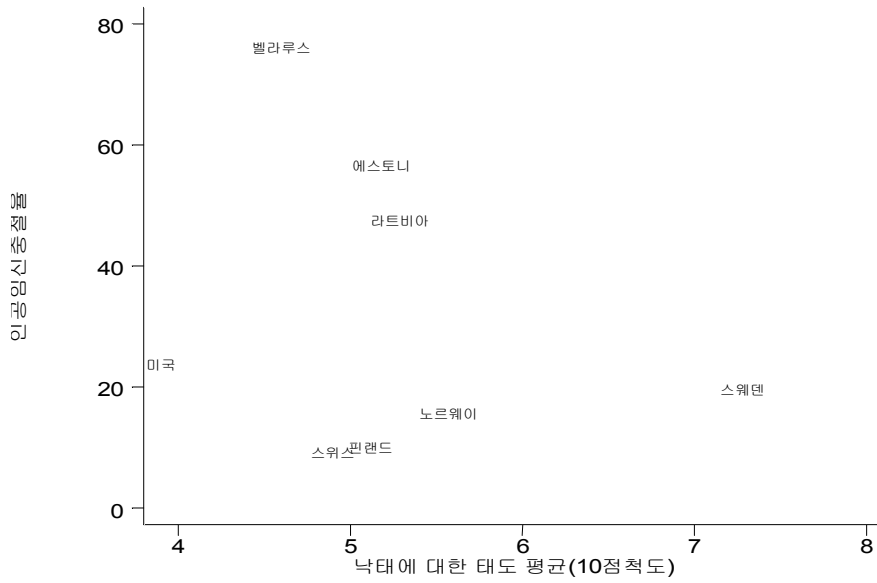
자료: 세계가치관조사 원자료(1995); Stanley K. Henshaw, Susheela Singh and Taylor Haas, "Recent Trends in Abortion Rates Worldwide,"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25, no. 1(1999), p. 46, 표 1.

- 주: 1) 인공임신중절율은 어느 특정한 해에 가입기 여성, 대개 15-44세까지의 여성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의 수를 나타낸다. 표의 인공임신중절율은 1995년의 인공임신중절율이다.  
 2) \*는 완전한 자료로 믿어지는 국가의 인공임신중절율임을 뜻한다  
 3) 척도(1)은 낙태의 정당성에 관한 7점 척도("1.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부터 "7. 항상 정당화된다")에서 "1.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에 응답한 비율이고 척도(1-2)는 "1.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 및 2번 척도를 선택한 비율이다.





웨이,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낮다. 이런 현상을 본다면 인공임신중절을 자체는 낙태에 대한 태도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서유럽 국가인지 아니면 비 서유럽 국가인지의 구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표 1>에서 인공임신중절율에 관한 자료가 완전하다고 믿어지는 국가만 제시한다.

<그림 2> 낙태에 대한 태도와 인공임신중절율과의 관계

낙태에 대한 태도와 인공임신중절율의 관계를 서유럽 국가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일단 미국이 다른 서유럽국가에 비해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인공임신중절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순으로 낙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해가면서 인공임신중절율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출산력 수준이 높은 사회, 주로 개발도상국가에서 낙태가 출산을 억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아직 경제성장의 정도가 낮고 피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출산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인공임신중

절이 널리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스웨덴 등의 서유럽 국가에서는 낙태에 대한 태도에 관계없이 이미 출산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피임이 널리 실천되고 있다. 따라서 서유럽 국가에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 자체가 적어 낙태에 이르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태도에 관계없이 인공임신중절을 이 낮은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인공임신중절을 보이는 서유럽 국가에서 낙태에 관한 태도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이는 어떤 요인때문일까? <표 1> 과 <그림 1> 그리고 <그림 2>를 통해 드러난 현상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낙태에 대한 태도는 사회에 따라 매우 부정적인 입장에서부터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가톨릭이 강한 국가에서는 낙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반면 개신교와 가톨릭이 혼재해 있는 유럽 국가들의 낙태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구 소련연방에 속한 국가들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본은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도 더 낙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가톨릭이 주류를 이루는 남미에서 낙태에 대해 강한 부정적 태도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일반인들의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남미 국가들이 낙태에 대해 강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 가톨릭이 강한 전통을 고려하면 일단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남미 국가들의 낙태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무종교인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개신교나 가톨릭 신자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1/4 정도인 사회에서도 낙태에 대해 비교적 강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낙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요인이 종교변수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무종교인이 거의 없고 국민의 대다수가 개신교도인 스웨덴은 분석대상 국가 가운데 낙태에 관해 가장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종교변수가 낙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말하기 힘들게 한다.

비교적 서유럽 국가들의 낙태에 대한 태도가 다른 국가들의 낙태에 대한 태도보다 긍정적인 현상은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만든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명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표 1>과 <그림 1>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에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등 탈물질주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국가가 아닌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낙태에 대한 태도가 잉글하트가 주장하는 탈물질주의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 낙태에 대한 태도에 관한 한 종교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도 있고, 잉글하트가 주장하듯이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형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국가도 있을 가능성이 크다.

#### IV. 종교열심도 및 종교중요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모든 사회에서 종교 자체가 낙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톨릭이 강한 남미 국가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가톨릭이라는 종교가 낙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남미 이외의 국가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와 종교와의 사이에 일관성 있는 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종교에 관한 다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이 연구에서는 종교에 관한 변수로 종교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종교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의 여부를 또 다른 변수로 설정했다. 즉, 어떤 종교인가에 관계없이 종교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의 가르침을 내재화하고 그 결과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한 종교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종교의 가르침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서 낙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지

7)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명제는 이 논문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Ronald Inglehart,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Globalization and Postmodern Value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3, no. 1(2000); Ronald Inglehart and Wayne E. Baker,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5, no. 1(2000) 등을 참조할 것.

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별로 종교열심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다음 <표 2>를 통해 살펴보자.

<표 2>에는 종교열심도가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행은 종교에 얼마나 열심이라는 질문에 ‘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한국판 설문지에는 1부터 7까지의 척도의 “1. 대단히 열심”이라고 응답한 경우이지만, 외국의 경우 “1.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한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개신교나 가톨릭의 경우 전형적인 예배의식은 일요일에 갖는 예배의식으로 대개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도 종교에 열심인 경우로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해 <표 2>에서는 두 번째 행에 척도 ‘1’과 ‘2’에 응답한 경우를 묶어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 종교열심도는 “대단히 열심”인 경우를 택하기로 하고, 두 번째 항목의 척도 ‘1’과 ‘2’에 응답한 비율로 이해하고 해석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국가 가운데 종교에 대단히 열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폴란드로 약 56%가 응답하고 있다. 그 다음은 멕시코, 미국, 페루, 브라질, 바스크, 베네수엘라,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종교에 대단히 열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적은 국가는 러시아이고 그 다음은 일본, 에스토니아, 핀란드, 스웨덴, 동독, 라트비아, 노르웨이,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대단히 열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9%로 31개 국가 가운데 16번째로 열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종교열심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다음 <그림 3>은 종교열심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의 평균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은 종교열심도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낙태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삼고 종교열심도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해 두 변수의 관계에 가장 적합한 직선을 그려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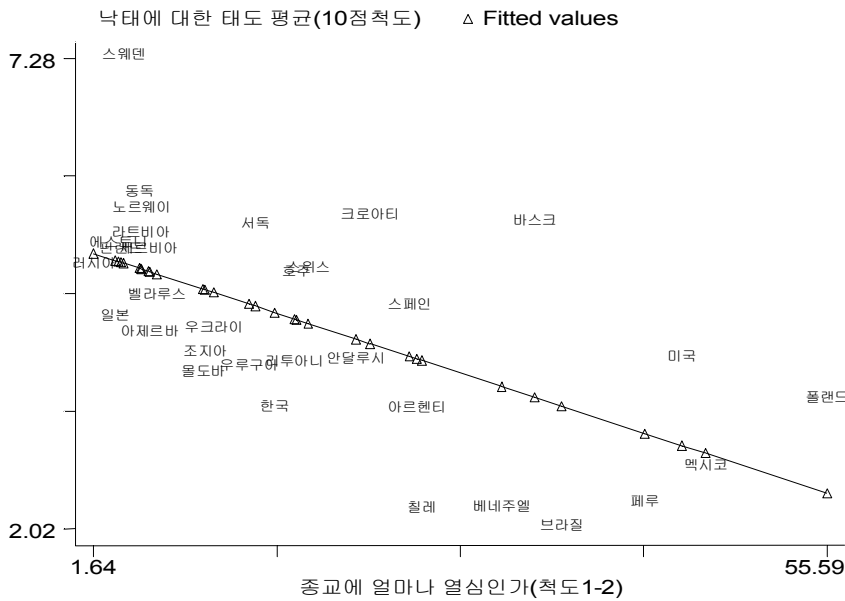
먼저 종교열심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이 종교에 열심인 국가들은 낙태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반면, 응답자들이 종교에 열심이지 않은 국가들은 낙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표 2> 국가별 “종교에 열심”이라고 응답한 비율 및 종교의 중요도의 평균값

국가	종교열심도1(%)	종교열심도2(%)	종교의 중요도
러시아	0.50	1.64	2.68
일본	2.04	3.25	3.04
에스토니아	1.27	3.46	2.97
핀란드	1.13	3.62	2.59
스웨덴	1.36	3.86	2.88
동독	1.81	5.01	3.35
라트비아	1.00	5.08	2.78
노르웨이	2.03	5.16	2.70
세르비아	2.08	5.69	2.33
아제르바이잔	2.63	5.75	1.90
벨라루스	1.63	6.31	2.39
몰도바	2.88	9.68	2.12
조지아	2.58	9.82	1.82
우크라이나	1.71	10.49	2.45
우루과이	4.10	13.07	2.46
서독	2.62	13.52	2.73
한국	6.58	14.94	2.45
리투아니아	2.96	16.42	2.47
호주	5.73	16.55	2.48
스위스	3.72	17.44	2.63
안달루시아	5.65	20.95	2.24
크로아티아	4.00	22.00	2.34
스페인	7.46	24.86	2.31
아르헨티나	8.12	25.43	2.06
칠레	9.91	25.80	1.87
베네수엘라	10.62	31.67	1.59
바스크	8.76	34.06	2.43
브라질	12.48	36.09	1.49
페루	12.77	42.16	1.63
미국	13.08	44.92	1.63
멕시코	14.01	46.66	1.77
폴란드	7.29	55.59	1.73

주: 종교의 중요도는 “1. 대단히 중요, 2. 대체로 중요, 3. 거의 중요하지 않다, 4. 전혀 중요하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그림 3>에서 스웨덴은 종교에 열심인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낮으면서 낙태에 대한 태도는 가장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칠레,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등은 종교에 열심이면서 낙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이나 폴란드는 종교열심도에서 칠레, 베네수엘라, 브라질, 페루 등보다는 더 열심이지만 낙태에 대한 태도는 더 긍정적이다.



주: 종교의 열심도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의 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R^2$ 는 0.37로 나타났다. 종교열심도의 회귀계수는 -.05이고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림 3> 종교열심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의 관계 및 회귀분석 관계식

<표 1>을 통해 종교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 <그림 3>을 통해 우리는 종교에 얼마나 열심인지의 여부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종교의 영향과 관련해 종교 자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종교에 얼마나 열심인지에 따라서 낙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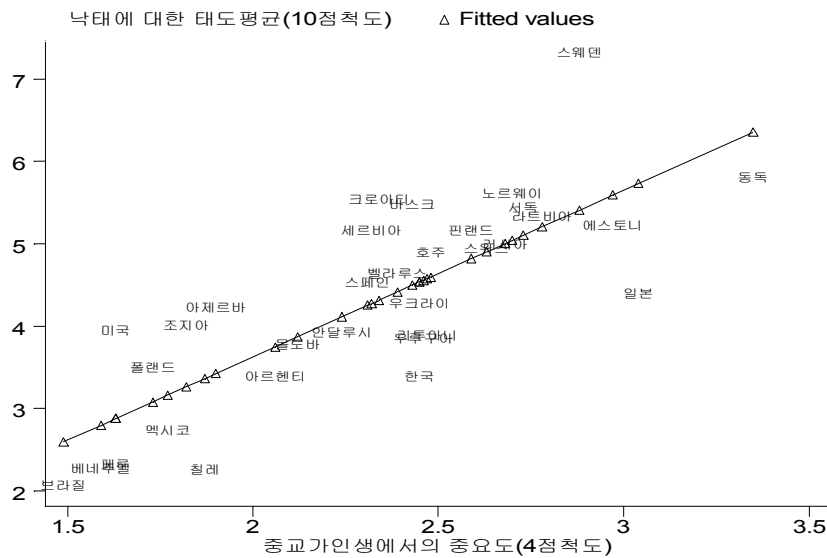
종교의 열심도 외에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변수는 종교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끼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이 연구에서는 종교중요도라고 칭한다. <표 2>를 보면 자신의 삶에서 종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브라질(1.49)이다. 그 뒤를 베네수엘라, 페루, 미국, 폴란드, 멕시코, 칠레 등이 잇고 있다. 주로 남미의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종교가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국가들은 동독, 일본, 에스토니아, 스웨덴, 라트비아, 서독,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핀란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로 서유럽의 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가톨릭이 지배적인 종교이면서 종교에도 열심인 나라들이 종교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반면에 서유럽의 국가들은 국민들이 종교에 비교적 열심이지도 않고, 종교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지 않다. 소위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인 서유럽의 국가에서는 종교가 인생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종교에도 열심이지 않다. 반면에 가톨릭이 지배적인 남미에서는 종교가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종교에도 열심이다. 구 소련연방의 국가들 및 동유럽의 국가들은 이 중간에 위치하는 경향이다.

그러면 종교중요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다음 <표 4>는 종교중요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를 보면 종교중요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중요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낙태에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며, 종교중요도가 약화될수록 낙태에 관해 관용적인 입장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종교중요도는 연구대상 국가 가운데 중간쯤에 위치하지만 낙태에 대한 태도는 비슷한 종교중요도를 보이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훨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미국은 종교중요도가 비슷한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는 낙태에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서유럽의 국가들은 종교의 중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반면 낙태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남미의 국가들은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표 2>, <그림 3>, <그림 4>를 통해 우리는 종교 자체 못지 않게 종교중요도, 종교열심도에 따라서 낙태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 3>과 <그림 4>의 종교열심도 및 종교중요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의 관계는 각 국가별로 비율이나 평균값을 구한 다음 다시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집합적 수준의 분석이다. 이제 종교변수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개인적인 수준에서 다시 분석해 보기로 하자.



주: 종교중요도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의 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R^2$ 는 0.62로 나타났다. 종교중요도의 회귀계수는 2.02이고 유의도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림 4> 종교중요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의 관계 및 회귀분석 관계식

## V. 종교변수의 설명력

이 절에서는 낙태에 대한 태도에 종교가 갖는 영향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될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시행했다. 먼저 기준이 되는 모형을 구성했다. 기준이 되는 회귀모형은 낙태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성, 연령, 교육수준 그리고 소득 등의 네 변수를 포함한 모형이다. 종교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준 모형에 종교(가변수), 종교열심도(7점 척도, 연속변수), 종교가 인생에서 갖는 의미(4점 척도, 연속변수) 등 세 독립변수를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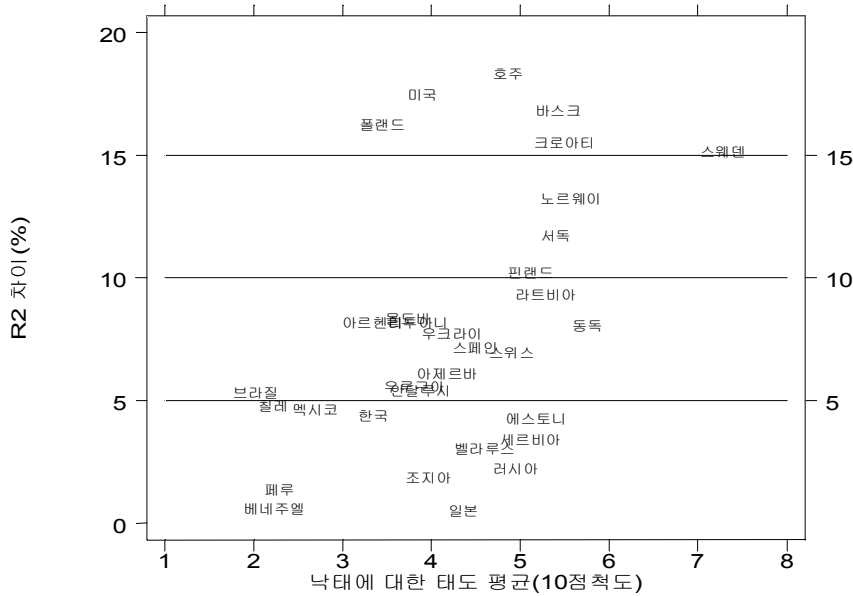
가한 모형을 구성했다. 그 다음 32개 국가 각각에 대해 기준 모형과 주모형을 적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R^2$ 의 변화를 계산했다.<sup>8)</sup>

다음 <그림 5>는 기준모형과 기준모형에 종교변수를 추가한 주모형 사이의  $R^2$  값과 낙태에 대한 태도의 평균값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에서 종교에 관한 세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R^2$  값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호주, 미국, 바스크, 폴란드, 크로아티아, 스웨덴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종교변수가 추가됨으로써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의 15-20%가 새롭게 설명된 국가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낙태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의 상당 부분이 종교에 관련된 변수에 기인한다는 뜻이다. 노르웨이, 서독, 핀란드는  $R^2$  값의 변화가 10-15%에 이르는 국가로 역시 낙태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종교에 관련된 변수들이 많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뜻이 된다.  $R^2$  값의 변화가 5-10%에 이르는 국가들은 라트비아, 동독, 몰도바,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스페인, 스위스, 아제르바이잔, 우루과이, 안달루시아, 브라질 등이다. 반면에  $R^2$  값의 증가가 크지 않은 국가들은 일본, 베네수엘라, 페루, 조지아, 러시아, 벨라루스, 세르비아, 에스토니아, 한국, 칠레, 멕시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유럽 국가에서는 종교변수를 추가함으로써  $R^2$  값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즉 낙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

8)  $R^2$  값이 얼마만큼 변해야 종교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통계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종교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의 여부는 기준 종교변수의 회귀계수의 유의도 및 모형과 주모형의 모형비교를 통해 말할 수 있다. 모형비교는 독립변수를 추가한 모형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는 오차의 평균값을 분모로 하고 기준모형과 주모형 사이에 설명된 에러의 양의 평균값을 분자로 해서 구해진 F 값을 가지고 F-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모형비교를 통해 종교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을 판별해야 한다.  $R^2$  값은 거의 변화가 없는 듯이 보여도 종교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R^2$  값은 증가하지만 종교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두 모형 사이의  $R^2$  값의 증가를 가지고 종교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분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R^2$  값은 새로운 변수가 추가됨으로써 종속변수에 존재하는 이질성(variation)을 얼마나 설명해주는지를 말해준다. 이 연구에 적용해 표현하면  $R^2$  값의 증가는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을 종교라는 변수가 얼마만큼이나 설명해주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도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종교변수를 추가함으로써 늘어나는  $R^2$  값을 통해 국가별로 종교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림 5> 낙태에 대한 태도의 평균과 종교변수를 추가하여 증가한 R<sup>2</sup>값의 관계

든 관계없이, 낙태에 대한 태도에 존재하는 이질성의 상당 부분이 종교, 종교열심도, 종교중요도 등 종교적인 이유에 관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미국과 스웨덴 등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미국은 낙태에 대한 태도에 비교적 부정적이면서 인공임신중절율은 유럽 국가들과 같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도 종교의 열심도나 종교의 중요도는 비교적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종교변수에 낙태에 대한 태도를 회귀시켜 보면 종교변수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즉 전반적으로 종교에 열심히 참여하는 반면에 낙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에 응답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낙태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 종교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에서 가치관의 양극화는 우려할 만하지 않다는 기존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종교변수에 따라서 낙태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국가인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종교열심도나 종교중요도는 매우 낮은 반면 낙태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긍정적인 국가였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도 일반인들 사이에 낙태에 대한 태도

를 둘러싸고 차이 혹은 이질성이 존재한다면 그 주요한 원인이 종교변수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페루, 베네수엘라 등은 그 반대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두 국가는 종교열심도나 종교중요도는 매우 높고, 낙태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경우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낙태에 대한 태도에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 차이는 더 이상 종교와 관련된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단 국가 전반적으로는 가톨릭이 지배적이고 국민들이 종교에 열심이고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 반대를 하는데, 낙태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더 이상 종교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흥미로운 사례이다. 일본은 신도로 대표되는 불교가 주요 종교이면서 낙태에 대한 태도에서 분석대상인 31개국 가운데 중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에 종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종교변수를 추가해도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을 설명해주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한국은 낙태에 대한 태도도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에 종교변수를 추가했을 때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는 군에 속해 있다. 브라질, 칠레, 멕시코, 우루과이, 안달루시아, 에스토니아 등과 비슷한 정도의 설명력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종교변수를 추가함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이 종교변수에 일부 기인한다고 설명해주는 것은 하지만 종교변수에 따른 태도의 이질성이 비교적 작은 국가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그림 5>에서 종교변수를 추가해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높은 국가는 호주, 미국과 함께 대개 유럽 지역에 속한 국가들이다. 스페인, 스위스, 동독 등도 5% 이상의 설명력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남미에 속한 국가들 및 구 소련연방에 속한 구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종교의 설명력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종교의 설명력은 낮은 편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종교에 따른 설명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연구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 및 종교의 영향에 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잉글하트의 논의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자.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명제는 주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지역의 가

치관 변동을 연구하면서 탄생했다. 즉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안전, 안보 등에 많은 가치를 두게 되지 않으며, 전통적인 종교나 가치가 힘을 잃는 반면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가치가 자리를 잡고, 안보나 성장보다는 인권과 자유, 환경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탈물질주의 명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잉글하트는 탈물질주의가 지배적인 사회가 되면 전통적인 신념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종교의 영향은 사라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 잉글하트는 아직도 종교의 영향이 여전히 관찰하고 자신의 논지를 수정한다.<sup>9)</sup> 그렇지만 자신의 논지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기성 제도권종교의 영향은 쇠퇴하고, 대신 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신은 존재하는지 등 좀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는 의미의 종교는 여전히 살아있고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림 5>에서 보면 낙태에 대한 태도에 관한 한 잉글하트가 말하는 많은 탈물질화된 사회에서 기성 종교와 종교의 열심도, 종교가 인생에서 갖는 의미 등 종교의 영향은 살아 숨쉬고 있다. 여전히 개인들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종교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스웨덴, 호주 등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합리적이며 세속화된 대표적 국가들에서 오히려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데 종교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다.

반면에 잉글하트의 분류에 따르면 아직도 ‘물질주의’ 가치관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지배적인 종교의 영향으로 낙태에 대해 평균적인 태도는 매우 부정적일 수 있지만, 종교의 차이, 종교의 열심도, 종교가 인생에 갖는 의미 등에 따라서 낙태에 대한 태도에 나타나는 이질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다.

종교는 한 사회의 가치와 신념체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떤 종교가 한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로 자리잡고 있어서 그 종교의 가르침이 한 사회의 가치와 신념체계를 형성하는 데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의 구성원들이 종교의 영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예는 <그림 5>에 나타나는 남미의 국가들로 보인다. 반면에 사회 전반적으로 세속화, 합리화, 탈물질주의화된 듯이 보이는 사회에

---

9) Ronald Inglehart and Wayne E. Baker, *op. cit.*.

서 종교가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감소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사회일수록 종교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개인에게 미치는 종교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클 수 있다. 미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 등 합리화되고 탈물질화된 사회에서 종교를 갖고 종교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종교활동에 열심인 개인은 종교의 가르침을 내면화하고 종교에 따른 가치, 의식,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데 종교변수가 큰 설명력을 보이는 것이다.

## VI. 5개국의 낙태에 대한 태도의 심층분석

이제 이 절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에 다양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등 5개국을 선택해 개인적인 수준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에 종교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낙태에 대한 태도에 통제변수의 영향 및 종교변수의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가 다음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변수별로 낙태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성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표 3>을 보면 한국, 일본, 스웨덴의 경우 통제변수만을 포함한 기본모형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낙태를 긍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종교변수를 통제한 주모형에서 성의 회귀계수의 유의도는 사라진다. 성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미국은 오히려 통제변수만을 사용한 기본모형에서는 성에 따른 낙태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변수를 추가한 주모형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낙태에 더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모형에 관계없이 성에 따른 낙태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나머지 4개국은 모형에 따라 성에 따른 낙태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에는 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연령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던 브라질에서 연령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

&lt;표 3&gt; 낙태에 대한 태도의 회귀분석

변수		한국(1)	한국(2)	일본(1)	일본(2)
상수		3.15***	5.23***	3.67***	4.23***
성	남성	0.26*	0.07	0.30*	0.28
	여성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연령	-29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30-39	-0.16	-0.11	0.02	0.05
	40-49	0.03	0.12	0.03	0.07
	50-59	-0.72***	-0.58**	-0.66*	-0.49
교육	1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2	0.41**	0.40**	0.52*	0.53**
	3	0.71***	0.76***	0.82*	0.85***
결혼상태	미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유배우	-0.22	-0.23	0.27	0.33
	이혼, 사별	0.08	0.06	-0.07	0.07
종교	무종교		-0.73***		0.11
	개신교		준거범주		비해당
	천주교		-0.04		비해당
	불교		-0.00		준거범주
	기타		0.04		-0.14
종교열심			-0.34**		-0.21
종교의미			-0.47***		-0.20*
R <sup>2</sup>		0.0456	0.0866	0.0365	0.0461
F값 및 유의도		7.174***	8.086***	4.223***	3.569***

변수		미국(1)	미국(2)	스웨덴(1)	스웨덴(2)	브라질(1)	브라질(2)
상수		3.75***	8.19***	6.69***	8.74***	1.66***	3.20***
성	남성	0.04	-0.38***	0.40**	0.03	0.07	-0.10
	여성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연령	-29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30-39	0.05	0.37	0.07	0.08	0.32*	0.36**
	40-49	0.38	0.49**	0.40	0.37	0.65***	0.73***
	50-59	-0.15	0.26	-0.30	-0.16	0.39*	0.56***
교육	1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2	0.35	0.25	0.68***	0.79***	0.41***	0.40***
	3	1.29***	1.16***	0.98***	1.03***	0.92***	0.92***
결혼상태	미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범주
	유배우	-0.66***	-0.31	-0.27	-0.18	-0.40**	-0.32**
	이혼, 사별	-0.78***	-0.52**	-0.63*	-0.42	-0.50**	-0.47*
종교	무종교		-0.26		비해당		0.59
	개신교		준거범주		준거범주		준거
	천주교		-0.34**		-0.23		0.25
	불교		비해당		비해당		비해당
	기타		-0.25		-2.00***	0.0277	0.24
종교열심			-0.65**		-0.55***	4.015***	-0.39***
종교의미			-0.91***		-0.58***		-0.29***
R <sup>2</sup>		0.0523	0.2065	0.0477	0.1972		0.0776
F값 및 유의도		10.01***	28.954***	6.004***	19.523***		7.251***

자료: 세계 가치관 조사 원자료(1995)

주: \*\*\* p&lt;.01, \*\* p&lt;.05, \* p&lt;.1

교변수를 추가한 모형의 여부에 관계없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낙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커진다. 그러나 50세 이상은 30대나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국가에서는 연령에 따른 영향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다른 연령층과 구별되게 나타날 뿐이다. 미국에서는 종교변수를 통제했을 때 40대가 낙태에 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성에 따른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던 브라질은 연령에 따른 차별성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성에 따른 차별성은 나타나지만 연령에 따른 차별성은 두드러지지 않는 양상을 보여준다.

교육은 낙태에 대한 차별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분석대상인 5개국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낙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종교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기본모형이나 종교변수를 추가한 모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낙태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5개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다

결혼상태에 따른 낙태에 대한 태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국가는 브라질이다. 미혼에 비해 유배우 혹은 사별, 이혼의 경우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종교변수를 추가해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나머지 4개 국가에서는 종교변수를 추가한 주모형에서 결혼상태에 따른 낙태에 대한 태도의 차별성이 통계적인 유의도를 잃는다. 즉 결혼상태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에 차별성이 없는 것이다.

이제 종교변수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낙태에 대한 태도에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는 세 가지 종교변수를 포함한 주모형과 세 가지 종교변수가 없는 기준모형과의 모형비교를 통해 판별할 수 있다. 모형비교를 해 본 결과 일본은 종교변수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설명된 오차의 양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다. 반면에 나머지 4개 국가에서는 세 가지 종교변수를 추가한 결과 새롭게 설명된 오차의 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일본을 제외한 4개국에서 종교변수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종교변수의 내용에 따라 국가별로 낙태에 대한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

지 살펴보자. 한국의 경우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에 따라서는 낙태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없다. 다만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종교인은 종교를 가진 개인보다 낙태에 대해 오히려 더 반대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당연히 종교에 따른 차이가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천주교도가 개신교도에 비해 낙태에 반대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국민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스웨덴에서는 기타 종교를 지닌 사람들이 개신교도에 비해서 낙태에 더 반대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종교에 따라서는 낙태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종교의 열심도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날까? 분석대상인 5개국 모두에서 개인이 종교에 얼마나 열심인가의 여부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미국, 스웨덴, 브라질 모두 종교에 열심일수록 낙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높아진다.

종교가 인생에서 갖는 의미도 마찬가지이다. 종교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낙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유의도 0.1 수준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낙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분석대상이 된 5개국 모두에서 종교를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낙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교의 분포, 대륙의 분포 등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5개국을 따로 선택해 개인적인 수준에서 성, 연령, 교육, 결혼상태 등을 통제한 후 종교변수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종교 자체에 따른 차이보다도 종교의 열심도, 종교의 중요도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믿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얼마나 열심히 종교에 참여하고 있고, 종교를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VII. 맺는 말

이 연구는 낙태에 대한 태도에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사용해 비교한 것이다. 먼저 낙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남미 국가들의 낙태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유럽 국가들에서 낙태에 대해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가 드러났다. 구 소련연방에 속한 국가들과 동유럽에 속한 국가들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은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 군에 속해 있다.

낙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낙태에 대한 태도와 같은 의식, 태도, 가치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종교의 영향을 종교, 종교열심도, 종교중요도라는 세 가지 종교변수를 통해 살펴보았다.

종교열심도나 종교중요도 모두 남미 국가들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유럽 국가들의 종교열심도나 종교중요도는 낮게 나타났다. 미국은 종교열심도나 종교중요도 모두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한국은 분석대상국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었다.

종교변수와 낙태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여러 방법으로 분석해 본 결과 종교열심도나 종교중요도는 낙태에 대한 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종교에 열심인 국가들은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높았으며, 종교를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에서 역시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높았다. 즉 가톨릭이 강한 남미 국가들은 종교열심도도 높고, 종교중요도도 높아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반해, 소위 합리화되고 세속화되었으며 탈물질화된 유럽의 국가는 종교열심도나 종교중요도 모두 낮으면서 낙태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변수가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측면에서는 합리화되고 세속화되었으며 탈물질적 가치관을 지닌 유럽의 국가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준다. 국가 전체적으로 종교의 영향이 강한 데서는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데 종교변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세속화, 합리화, 탈물질화된 유럽이나 미국에서 종교를 지니고, 종교에 열심이거나 종교를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낙태에 대해 뚜렷하게 구별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 결과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설명력의 증가에 종교변수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종교의 분포, 대륙의 분포 등에 상관없이 종교변수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낙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종교변수의 영향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다. 어느 종교가 지배적인지 어느 대륙에 위치하고 있는지 혹은 사회가 얼마나 세속화, 합리화, 탈물질화되었는지에 무관하게 낙태에 대한 태도에 종교변수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다만 일본은 예외적으로 종교변수가 낙태에 대한 태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드문 사례였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만들고 분석해 온 잉글하트는 어느 사회든지 탈물질화 과정을 밟으면서 종교의 역할은 약화된다고 보았다. 최근 그는 자신이 주장해 온 논지를 수정해 종교의 영향을 다른 방식으로 인정했지만, 이 연구를 통해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낙태에 대한 태도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교가 낙태에 대한 태도의 차별성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합리화, 세속화, 탈물질화된 사회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태도의 차별성을 설명하는 데 종교변수가 높은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종교의 영향이 지배적인 남미의 경우에는 종교가 낙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낙태에 대한 태도의 차별성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유럽의 국가들보다 더 적었다.

한국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종교에 열심이거나, 종교를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낙태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이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러나 생명을 존중하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으면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의 차별성을 설명하는데 종교변수의 설명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한국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낙태에 대한 태도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낙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종교가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톨릭이 지배적이면서 낙태에 대한 반대가 분명한 남미 국가들과 대비된다.

반면에 합리화되고 세속화되었으며 탈물질화된 유럽 국가들에서는 종교에 열심이고 종교를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낙태에 대한 태도의 이질성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유럽의 국가들보다 훨씬 낮다. 이는 한국에서 낙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 유럽의 개인들이 낙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종교가 미치는 영향보다 작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새삼 한국에서 종교의 의미를 묻게 한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고, 종교마다 활동이 왕성한 한국에서 개인에게 던져지는 종교의 의미는 무엇일까? 종교의 가르침은 개인의 삶에 내면화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개인의 태도, 가치, 의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한국인의 삶에 종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를 이용한 낙태에 대한 태도의 분석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새로운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 참고문헌

- 은기수, 「인공유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로짓분석과 생존분석의 비교」, 『한국인구학』, 24권 2호 (2001), 79~115쪽.
- 은기수·권태환, 「한국 유배우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및 결정요인」, 『한국인구학』, 25 권1 호 (2002).
- DiMaggio, Paul, John Evans and Bethany Bryson, "Have Americans' Social Attitudes Become More Polarize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02, no. 3(1996), pp. 690 ~755.
- Henshaw, Stanley K., Susheela Singh and Taylor Haas. "Recent Trends in Abortion Rates Worldwide,"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vol. 25, no. 1(199), pp. 44-48.
- Hunter, James D, *Culture Wars. The Struggle to Define America*, New York: Basic Books, 1991.
- Inglehart, Ronald.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 \_\_\_\_\_,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_\_\_\_\_, "Globalization and Postmodern Value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3, no. 1(2000), pp. 215 ~228.

Inglehart, Ronald and Wayne E. Baker,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5, no. 1(2000), pp. 19 ~51.

Wolfe, Alan, *One Nation, After All. What Middle-Class Americans Really Think About*, New York: Viking, 1998.

주요어

낙태, 종교, 종교열심도, 종교중요도, 탈물질주의 세계가치관조사